

# 1922년 조선건축회에 의한 개선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Better Housing Plan Competition by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of Chosun in 1922

서 귀 숙\*  
Suh, Kuee-Sook

### Abstract

The main object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the better housing business by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of Chosun.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of Chosun was founded in 1922 and it influenced great deal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architecture.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of Chosun took the first step in business by holding the Better Housing Plan Competition which was the first housing plan competition in Korea. Also, it meant the enlightenment of better cultural housing .Overall,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t could be considered that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of Chosun was connected with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of that time. 2) The Better Housing Plan Competition indicated the way of improving better living condition. 3) Most of the prize-winning works emphasized economical and practical way of housing. 4) The wanted to get out of the old conventional way of housing. 5) All the plans showed “the living” and it meant that “the living” is the centre of family life which connected the modern housing plan. 6) Western way of life was combined with the conventional style, in other words, modernization of life was derived from the western style. 7) Better housing plan which is more suitable for the Korean weather and environment was not considered. 8) Colonial domination of Japanese style could also be found in housing. Most of the plans used Japanese style as the basic housing style.

### I. 서론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일본에 의한 한국의 건축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당시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인 건축가와 건축관계자를 중심으로 1922년 4월 30일 조선건축회(朝鮮建築會)<sup>1)</sup>가 창립된다. 조선건축회는 조선총독부와 연계를 갖고 당시 조선에서의 건축관계 사업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협회였던 만큼, 한국건축의 근대화에 중요한 영향과 역할을 담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건축회가 주관하는 건축활동 중에서 특히, 주택과 관련된 활동은 한국주거건축의 초기 근대화 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중요요인으로 추정된다. 조선건축회는 당시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면서 서구풍의 생활개선과 그러한 생활개선이 반영된 주거공간의 변화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사회·문화·정치·경제의 중심지인 서울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주택에서도 흡수되기 시작하며, 전통적인 한국주택이 변형되고, 외래문화에 기반을 두는 주거생활양식과 주거공간이 형성되기 시작

\* 정희원,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전임강사, Ph.D.

한다.

지금까지 일제시기에 건축된 주택과 이와 관련한 주거생활양식 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주거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조선건축회에 의한 한국에서의 주택사업 진행과 활동에 대한 연구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의 특수한 한국정치 상황에서 조선건축회의 주택계몽 및 주택개선활동이 한국주택 근대화와 무관한 관점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주택 근대화와 연계로 시각을 돌림으로써 한국주택 근대화의 틀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간접적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들의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관여와 역할을 재인식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건축회의 결성과 건축회에 의한 주택계몽 및 개선활동(1922~1945) 중에서 1922년의 첫 번째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사하며, 생활개선과 그에 따른 주택개선의 배경 및 동향과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조선건축회에 의한 한국에서의 주거 근대화와와의 관계를 조명하는데 그 의의를 함께 두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조선건축회가 1922년 6월 주택개선을 위한 주택도안 현상모집을 실시하여 선정한 설계도안을 중심으로 하며, 기본자료로서 조선건축회에 의해 창간(1922년 6월)된 당시 한국에서의 유일한 건축잡지인 『朝鮮と建築(조선과 건축)』을 연구자료로 한다.

## II. 조선건축회와 개선주택현상모집

### 1. 조선건축회와 개선주택현상모집의 경위

조선건축회는, 협회창립과 그 기념사업으로 건축회의 기관지인 『조선과 건축』을 창간하며, 동시에 주택설계현상모집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선주택설계현상모집의 발표는 창간호

인 『조선과 건축』에 발표하기에 이른다<sup>2)</sup>.

조선건축회의 창립 취지를 살펴보면, 「(중략) 이러한 진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사회시설을 지도해야하는 커다란 포부를 갖고 모든 조선건축계의 건실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문명적 도시 건축을 계획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조선의 문화적 생활개선과 기후풍토에 적응하는 주택건축 보급을 계획함으로써 사회문명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중략)」<sup>3)</sup> 과학적이고 문명적인 조선의 도시건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러한 일을 진행하는데 건축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창립취지에서 밝히고 있다. 조선건축회의 발기식에서 한국인으로 참가한 박영효와 이완용의 축사내용에서도 「도시발전과 시민의 번영을 촉진시키며....주거는 위생적이고 편리하며, 아름답고 경제적이어야 한다.(박영효)」<sup>4)</sup>, 「...조선건축회의 설립은 조선문화의 진보에 매우 중요하며, 현재의 급선무인 조선가옥개선에 대한 건축회의 기대가 크다... (이완용)」<sup>5)</sup> 라는 축사를 하고 있다. 또한 발기식 이후 진행되었던 만찬회에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水野鍊泰郎는 주택개선, 생활문제, 도시계획에 대한 건축회의 기대를 중요시하는 내용의 연설<sup>6)</sup>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건축회 이사장인 中村 誠는 현시점의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건축과제로써 도시계획과 주택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주택개선을 위해서는 생활양식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재래의 의복과 좌식생활을 개선하고 식생활 또한 개선해야 함을 주창한다. 일상적 생활과 활동의 편리함과 보건위생면의 시설개선 등은 도시생활의 향상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써 이상적인 도시생활이 실현되며, 이것이야말로 선진외국의 도시생활과 나란히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란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연설<sup>7)</sup>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회 창립 연설내용에는 「주택개선」이란 내용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조선건축계는 근대

적인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건설이 사회문화 발달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사회활동의 능력을 높이는데 원동력이 되는 주거와 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사업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가이익과 직결되며, 따라서 그러한 문명도시에서의 문화적 생활을 중요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조선에서의 주택개선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주택개선이 포함된 관련활동은 이미 조선건축회 발기를 위한 준비과정인, 창립총회 임원회의 진행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총 8차에 걸친 임원회 중 1922년 3월 23일에 진행된 임원회에서 『조선과 건축』의 창간호에 개선주택설계현상모집을 발표하기로 결정<sup>8)</sup>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건축회의 발족과 함께 창립취지에서 밝힌 조선의 주택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조선건축회의 의사표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이러한 경위를 생각하면, 주택개선현상모집도 당연한 사업 결과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 2. 개선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의 목적과 모집요강

개선주택도안 현상모집은, “본 조선건축회회는 매우 시급한 주택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기관지인 『조선과 건축』 창간호 발행을 기하여, 조선에 있어서 중류가정으로 문화생활에 적합한 『개선주택설계도안』을 모집한다.”<sup>9)</sup>라는 공모를 발표한다. 발표내용에서 주택은 「중류가정」을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개선주택의 모집은 「문화생활」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대상을 「중류가정」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조선건축회가 당시 한국에서 이루어야 할 두 가지 (도시계획과 주택개선) 사업내용을 관찰해 보면, 주택개선은 모든 시민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계획과 더불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볼 수

표 1. 주택도안 현상모집 공모내용

구분	요강내용
건평	30평 이하(단, 지하실 포함안함)
가족	5인 정도로 한다
배치	가족분위
양식	자유
구조	조선 중부의 기후풍토에 적합하고 특히, 외벽은 방한처리를 한다
건축비	5000원 이하
제출도면	· 각 층 평면도(축척 1/50) ·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축척 1/50) · 단, 배치도, 도면설명서의 첨부는 임의로 한다
모집규정	· 당선도면 이외의 도면은 심사후 반환 · 용지는 도면용지를 사용하고 착색 자유 · 용모자의 주소, 성명은 도면 설명서에 기입(단, 각 도면 및 설명서에는 반드시 암호를 사용하고 별지에 그 암호와 주소, 성명을 기입하여 밀봉후 우송)
제출처	조선건축회 현상도안계
제출마감	대정11년(1922) 8월 30일
발표	대정11년(1922) 9월 발행 『조선과건축』 잡지
상금	1등(1작) : 100원 2등(2작) : 50원 3등(4작) : 25원

(『조선과 건축』 1922. 6.에서)

있다. 또한 중류가정은, 도시에 거주하는 계층으로 사회를 이끄는 중류계급을 추정할 수 있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활발하게 생활개선운동<sup>10)</sup>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이 곧바로 조선건축회의 개선주택모집에 적용되어 한국에서의 「중류가정」을 위한 모색방안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중류가정」이란, 도시의 중산층을 이루는 부류로써 당시 정치와 산업 및 교육의 중심지인 경성(서울)이라는 대도시 상주하며, 신문화를 받아들이는 개혁적인 위치에 있는 계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경제력은 상류계급에 비해 낮았으나, 신문화<sup>11)</sup>의 고등교육을 받고 의식개혁과 함께 생활개혁을 주도하게 되며, 이에 맞는 새로운 생활을 도입한 주택을 모색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중류가정」은 그 사회를 이끌어갈 지식층이며 도시생활자인 것이다.

표 2. 개선주택현상모집 진행상황<sup>12)</sup>

년 월 일	위 원 회	내 용
1922 / 3/23	창립총회 제2차 임원회	· 「조선과건축」 창간호1집1호에 개선주택설계현상모집 발표 결정
1922 / 6/25		· 「조선과건축」 1집1호 p.58 에 주택도안현상모집 공모
1922 / 9/25		· 「조선과건축」 1집4호 · 주택개선현상모집 성적 및 응모도안전시회 개최에 대한 발표 · 경성 전시회는 한 장소에서 2일간 개최 예정
1922 / 10/ 4	임원회	· 현상도안 심사건 - 심사방법은 심사원에서 협의결정 - 심사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개평을 작성 - 현상 이외에 가작에 해당하는 것은 심사원의 의견에 따르며 이에 적절한 상을 신설 · 응모도안 처리건 - 응모도안은 모두 공개하며, 전람회 개최 - 전람회장은 경성일보사 내청각으로 하며, 10.21~22 2일간 또는 10.23까지 3일간으로 한다
1922 / 10/ 6	제1회 현상도안심사위원회	· 예선
1922 / 10/ 9	제2회 현상도안심사위원회	· 심사 진행
1922 / 10/11	제3회 현상도안심사위원회	· 회의 중지(流會)
1922 / 10/13	제4회 현상도안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결정 · 심사위원회 해산
1922 / 10/16	임원회	· 주택도안전람회 개최의 준비위원 선정 · 전람회 개최시 시민을 위한 설명위원을 두고, 총독부, 滿鐵, 鮮銀, 殖銀에서 약간명을 위원으로 파견한다
1922 / 10/25		· 「조선과건축」 1집5호에 당선작품 개제
1922 / 10/21,22		· 현상주택도안 전람회 개최
1922 / 10/30	제1회 정기회	· 현상개선주택도안 입상자 상급전달

또한, 「문화생활」이란 재래의 생활과 환경개선 즉, 새로운 생활을 의미하며 이는 곧 도시생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조선건축회는 현상모집요강에서 몇 가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중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로써 30평 이하의 건평을 제시하고, 종래의 대가족제도에서 탈피하는 5인이라는 소규모 가족구성으로,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모내용은 현상모집의 목적인 「문화생활」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의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계몽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주입시킨 규정임을 알 수 있다.

### 3. 개선주택설계도안 당선과 전람회

주택도안 모집작품의 마감은 1922년 8월 30일까지였으나, 건축회는 9월 30일까지로 마감을 연기<sup>13)</sup>한다. 그리고 변경된 마감일까지의 응모작

품은 총 74개에 이른다.

표 3에서 보여지듯이 설계도안은 각 지방에서 응모하였으며, 특히 한국에 적용되는 주택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동경, 오사카, 효고(현, 고베)에서 소수이지만 응모를 하고 있다. 당시 한국에서의 주택개선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의 건축관계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응모자의 반수 이상이 대도시이자 수도인 경성(서울)에서 응모하고 있어 주택개선은 도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회는 당초 1등에서 3등까지 7개 작품을 선정하기로 하였으나, 총 74개의 응모작품에서 21개의 당선작을 선출하고 있다. 이는 1922년 10월 4일에 개최한 임원회의 내용 중에서 현상도안 심사건에 관한 회보의 기록에서 알 수 있으며 표 2참조, 또한 현상 이외의 작품으로 「가작」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당초 현상모집 요강에는 없었던 것으로, 실제

응모작품 중에서 13개의 작품을 가작으로 선정하게 되며, 1, 2등은 1개 작품만을, 그리고 3등은 6개 작품을 선출하여 총 21개의 당선작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 의하면, 3등에 당선된 4명은 가작으로도 입선이 되고 있는데, 이들 4명은 한 사람이 두개의 응모작품을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당선자 전원의 소속으로 보아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일본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상모집 공모내용에서 출품자 자격에 대한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택개선의 주최측이 일본인들로 구성된 건축회이었던 만큼, 모든 출품은 조선건축학회 회원들에게 요청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출품 응모작품수

한국 지방	출품수	일본 지방	출품수
경성	46	동경	1
용산	11	오사카	3
충북	2	효고	1
강원	3		
전북	2		
평남	3		
평북	2		
소계	69	소계	5
총합계		77	

(「조선과 건축」 1922.9.에서)

당선자의 선발과 함께 주최측인 조선건축회는 응모한 주택도안을 모두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그 방법으로 전람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주택개량 또는 개선에 대한 사업은 건축계가 담당해야 할 임무이지만, 역시 일반시민들에게는 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 만큼, 건축계에 못지 않게 주택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응모 모집을 발표했을 때 일반시민들로부터 도안발표에 대한 질문이 건축회 사무실로 매일 끊임없이 문의가 있었을 정도<sup>14)</sup>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시민들이 개선된 주택을 적극적으로 요구

하고 있었다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주최측인 조선건축회는 응모결과를 알림과 동시에 전시회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다. 당시 경성일보사의 후원을 받아 1922년 10월 21일, 22일 이틀간 응모작품 전부를 공개하는 전람회가 경성일보사 내청각(來靑閣)에서 개최된다. 이는 일반인들이 개선된 주택안을 관람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건축도안 전시회였다. 기록에 의하면, 전시 첫 날에는 688명의 관람자가, 둘째 날에는 985명이 관람을 하였고, 전시중에는 건축학회 이사

표 4. 당선자 소속 및 조선건축학회회원 유무

순위	설계자	조선건축학회회원유무	당선자 소속
1등	三國利道	정회원	滿鐵
2등	花田得郎	준회원	高工
3등	1석 隅田竹太郎	준회원	高工
	2석 木下龍次	정회원	鮮銀
	3석 牛尾美佐雄	정회원	殖銀
	4석 藤田哲夫	정회원	殖銀
	5석 宮島貞吉	정회원	本府
	6석 林吉松	정회원	殖銀
가작	藤原寅一郎	정회원	滿鐵
	宮臺德藏	정회원	鮮銀
	土井麟太郎	정회원	殖銀
	伊藤延次	정회원	鮮銀
	飯田興三郎	정회원	本府
	牛尾美佐雄	정회원	殖銀
	柵橋清一郎	준회원	高工
	木下龍次	정회원	鮮銀
	林吉松	정회원	殖銀
	松井松壽	정회원	本府
長原仁太郎	정회원	本府	
吉林義敦	준회원	高工	
藤田哲夫	정회원	殖銀	
계	21명		

(「조선과 건축」 1922. 9. 10.에서)

\* 정회원 : 건축의 기술 또는 업무에 종사하며, 학식경험이 있는자로,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자.

준회원 : 건축의 기술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滿鐵 : 만주철도주식회사

鮮銀 : 조선은행(현, 한국은행)

殖銀 : 식산은행(현, 한국산업은행)

本府 : 조선총독부

高工 : 고등공업학교

와 위원들이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도안설명을 했다<sup>16)</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주택개선에 대한 주목과 열의가 건축계와 일반인 모두에게 공통된 의식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준 전시회였다고 볼 수 있다.

### Ⅲ. 개선주택설계도안 당선작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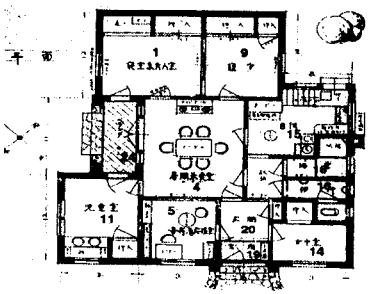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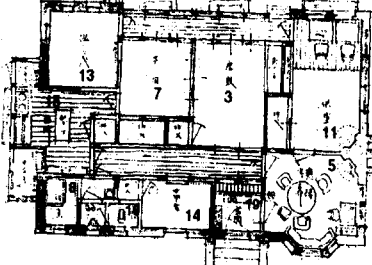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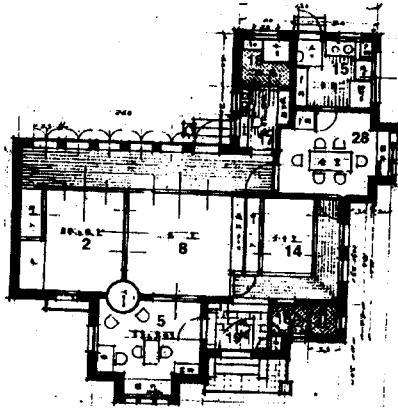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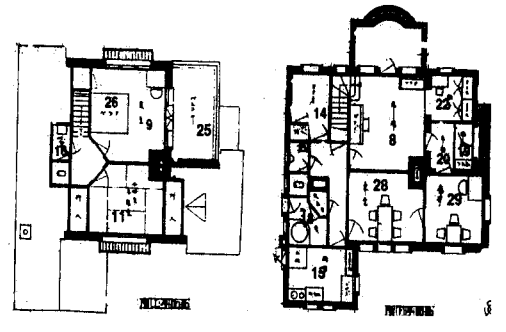
『조선과 건축』 1집5호에 개선주택설계도안 당선작이 설계도면과 설명서와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 당선작은 1등에서 3등까지의 작품은 모두 게재되고 가작은 13개중에서 1개 작품만을 소개하고 있다 표 5.

1등작품은 설명서가 없으나, 도안에서 거실겸식당을 중심으로 각 실을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실겸식당은, 가족생활중 식사와 단란을 위한 공동장소로써 주거평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이로서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분위의 표현으로 삼고 있다. 부엌, 욕실, 변소는 각 실로 분리되어 위생면에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며, 평면 배치에서 이들 실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설비면의 정비가 고려되고 있다. 생활양식은 거실겸식당, 서재겸용접실이 서구풍의 입식이며, 침실겸주인실, 아동실, 가정부실은 다다미의 좌식으로, 전체적으로 일본식과 양식이 절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 실의 명칭사용에서도 침실, 거실, 식당, 서재, 응접실, 아동실, 베란다 등은 재래의 일본주거공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서구풍의 공간명칭<sup>17)</sup>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문화생활이란 서구의 양식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동실은 주목되는 실이라 말할 수 있다.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실로서의 계획은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주거보다는 가족생활이 진보된, 생활양식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에서는 단층으로 벽돌 조적식을 취하고 있어 내화성의 고려와 함께 방한에 대비하는, 한국기후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등작품은 설계설명서가 제출되고 있다. 설명서에 의하면, 이 주택안은 「문화생활에 적합한 주택으로 가족분위」에 기본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도안의 평면형식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일본의 복도식 실배치가 기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부분적으로 서구풍의 서재겸용접실과 아동실이 도입되고 있다. 座數、茶の間<sup>18)</sup>는 장지문에 의해 상호 연결되는 재래의 일본주거공간이다. 또한, 당선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한식의 온돌방을 배치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의 기후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본식과 양식, 한식의 세가지 생활양식이 절충된 주택안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간복도를 사이에 두고 부엌, 욕실, 변소, 가정부실을 함께 배치하여 설비면에서는 경제적이나, 복도로 인해 충분한 일조량을 받지 못하므로 위생면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설계자가 의도하는 문화생활과 가족분위는 부분적으로 반영된 기거양식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등 1석의 작품에서는 거실이 중심이 되어 가족의 단란장소로 사용되는, 가족생활중심의 배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거실은 때때로 서재겸용접실과 또는 침실과 연결되는 가변성을 갖는다. 부엌과 식당은 그 기능을 분리하는 독립실로 계획되며, 식당은 서구풍의 의자와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다. 욕실과 화장실(화장과 탈의실 기능)의 분리 또한 개선된 문화생활을 반영시킨 배치라고 볼 수 있다. 난방관계는 폐치카라는 서구식 난방기구를 도입하여 세 개실(침실, 거실, 서재겸용접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서에 의하면, 재래의 가구가 아닌 서랍장과 양복장이라는 서구풍의 가구사용으로 또 하나의 문화생활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변소의 환기설비와 부엌, 욕실의 채광 및 통풍설비는 위생면에서 직접적인 개선생활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개선주택 도안 당선작<sup>15)</sup>

순위	개선주택도안	도안 설명서 내용 요약
1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 설명 없음</li> <li>· 도안에 대한 설명서 게재 안됨</li> </ul>
2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 28평</li> <li>· 구조: 외벽은 벽돌조적, 실내는 일본벽</li> <li>· 조선에 가장 적합하며, 문화생활에 적합한 주택</li> <li>· 조선에 많은 석재 사용과 자연스러운 분위기 연출</li> <li>· 가족본위형</li> <li>· 和洋절충</li> <li>· 건축비용 절감과 방한계획으로 출입을 적게하고, 온돌방 배치와, 복도 밑으로 통과하는바람을저렴한 가격의 재료사용으로 막음</li> <li>· 아동실은 넓고 개방적이게 하며, 마루와 다다미로 반반씩 마감한다</li> </ul>
3등 1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 29.75평</li> <li>· 구조: 벽돌조적, 지붕 붉은기와</li> <li>· 和洋절충식으로, 거실, 침실, 가정부실을 제외한 그의 실은 洋式으로한다</li> <li>· 창은 이중창</li> <li>· 난방으로 폐치카를 사용하며 서재, 거실, 침실의 3실에 걸치게 한다</li> <li>· 서재와 거실사이는 唐戶로하고 여름에는 커튼으로 한다. 거실과 서재는 하나의 실로 할수 있으며 가족담란실로 사용하고, 남향을 취한다.</li> <li>· 거실에는 서랍장을 설치하고 양복장으로도 사용</li> <li>· 座敷겸침실은 거실과 합하여 커다란 실을 만들수 있게하며, 겨울에는 남향, 여름에는 북쪽창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li> <li>· 椽側(뒧마루)는 주로 어린이 놀이장소가 된다.</li> <li>· 변소는취기를 없애는 唐戶를 하고 바닥은 타일마감</li> <li>· 부엌, 욕실은 남향이며, 채광·통풍을 좋게하고 위생적으로한다.</li> <li>· 화장실은 마루바닥이고 의자식</li> <li>· 식당은 의자식, 재봉실로 사용하기도 하며 식탁은 다리미대로 사용</li> </ul>
3등 2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 1층 20.5평, 2층 9.4평</li> <li>· 구조:기초콘크리트, 외벽: 벽돌조적</li> <li>· 가족구성:부부+어린2+노인1+가정부1</li> <li>· 각 배치는 가족분위, 바쁜생활하는 중류계급을 대상으로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문화생활을 제공</li> <li>· 좌식을 의자식으로 개선</li> <li>· 가정부실과 어린이경노인실은 협소하여 다다미마감</li> <li>· 2층 주택은 부지와 공사비 절감에 좋고, 외관은 단층주택에 비해 좋기 때문에, 중류계급건물로 적합</li> <li>· 2층 지붕밀방은 공사비 절감과 지붕에 변화를 갖게 하므로 흥미로운 평면을 만들 수 있다.</li> <li>· 난방은 1, 2층에 폐치카로 가족인원에 알맞게 사용</li> <li>· 주택에는 수납실이 필요하다. 부엌의 밑을 지하실로하여 창고로 사용</li> <li>· 변소는 1층은 재래식, 2층은 수세식</li> </ul>

	개 선 주 택 도 안	도안 설명서 내용 요약
3동 3석	<p>1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 1층 19.6평, 지붕층 2.5평</li> <li>· 구조: 외벽 벽돌조적</li> <li>· 평면은 불필요한 실을 피하고 최소한의 평수로 계획</li> <li>· 많은 일조량을 취하기 위해 넓은 유리를 계획</li> <li>· 보온을 위해 외기·내기를 2중창으로 처리</li> </ul>
3동 4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 30평</li> <li>· 구조: 벽돌조적</li> <li>· 가족구성: 부부 2+어린이 2+가정부 1</li> </ul>
3동 5석	<p>1층 평면도                      2층 및 지하 평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 1층 20.5평, 2층 9.5평, 지하실 3평</li> <li>· 도안에 대한 설명서 게재 안됨</li> </ul>
3동 6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 설명 없음</li> <li>· 구조: 외벽 벽돌조적</li> <li>· 경제적이고 유쾌한 주택</li> <li>· 다다미를 평수로 하여 평면형태를 간단하게 처리</li> <li>· 처마 높이 낮게, 지붕경사도 낮게 처리</li> <li>· 외부는 洋式, 내부는 和式</li> <li>· 증기 및 온수난방은 공사비가 높고, 전기난로는 비경제적, 온돌은 부적합하고 겨울 이외에는 쾌적하지 못하다. 따라서 난방은 페치카 설치로 각 실의 동시 난방을 가능하게 한다</li> </ul>
가작	<p>1층 평면도                      2층 평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 1층 19평, 2층 11평</li> <li>· 구조: 목조 2층</li> <li>· 가족구성: 부부2+어린이2+가정부1</li> <li>· 1층의 식당겸거실, 서재겸용접실은 洋式,</li> <li>· 2층의 어린이침실,부부침실은 和式</li> <li>· 2층 어린이실의 동쪽에 공부방 배치</li> <li>· 1층 식당겸거실의 경계는 커튼으로 분리하고, 식당은 다다미와 리노륨으로 바닥경계를하며, 여기에 식탁테이블을 배치하고 다다미부분은 주부의 재봉실로 사용</li> <li>· 가족용 소형온수난방 설치, 보일러는 부엌에 설치, 각실에 라지에이터를 설치하고 욕실에는 온수급수</li> </ul>



3등 2석의 주택작품은 이층구조를 보이고 있다. 설명서에 기술한, 「중류계급을 대상으로 한 가족분위」의 배치계획이다. 1층은 거실을 중심으로 하는 각 실의 배치로 응접실, 식당, 욕실 등이 가족공동의 장소로 계획되며, 2층은 개인 침실을 위주로 하는 공·사 분리의 배치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면형식은 지금의 현대 주거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실 배치형식이다. 이 주택도안은 생활양식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도안 중 가장 많은 서구풍을 반영하고 있다. 2층의 아동실겸노인실(다다미의 좌식)을 제외하고 모든 실이 서구풍의 입식을 취하고 있으며, 침실에서 침대라는 가구사용은 주목되는 점이다. 난방관계는 3등 1석의 주택과 동일한 폐치카 사용으로 위, 아래층의 난방을 경제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3등 3석의 주택작품은 단층구조에 지붕아래 공간을 가정부실과 창고실로 계획한, 실용성을 도입한 주택안이다. 서구풍의 거실겸식당이 많은 면적을 갖고 평면의 중심에 위치하고 그 주위로 각 실들이 배치되고 있으나, 또 하나의 거실겸침실은 다다미로 마감된 좌식으로 주로 부부침실의 기능을 가지며, 남향에 연속되는 椽側(뒷마루)는 전형적인 일본식의 공간배치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식과 서구의 양식을 절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등 4석의 작품은 복도식 평면배치로 복도를 통해 각 실로 출입할 수 있게 배치되어 있으며, 각 실은 상호 연결보다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고정벽으로 계획되고 있다. 거실(침실기능)과 가정부실만을 제외한 모든 실이 입식의 서구풍을 취하고 있다. 평면은 현대적인 실구성과 배치로 중류계급의 주택으로 실제적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3등 5석의 작품은 2석의 작품과 동일하게 2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건물 외관의 서구풍 양식과 함께 실내의 생활양식 또한 침대와 의자, 테이블 등 입식으로 계획되어 있다. 단, 가족단

란의 중심이 되는 거실겸식당이 일본식의 다다미 마감인 좌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하실의 창고계획은 주택의 수납공간 확보라는 관점에서 실용성을 적용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3등 6석의 작품은 세 개의 실(서재겸손님방, 아동실, 식사실) 면적을 크게 하여 상호 연결시킴으로서 다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생활양식은 종래의 좌식으로 하며, 폐치카를 세 개의 실에 공용되는 난방으로 사용한다. 건평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전체적인 평면형식에서 일상적인 주택보다는 간이적이고 경제적인 주택생활에 적합한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작 작품은 지금까지의 주택 중에서 유일하게 목조의 이층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3등 2석의 작품과 같이 층으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분리계획하고 있다. 또한 설명서에서 보여지듯이 가정생활에서 주부의 생활을 고려하는 재봉실계획은 개선된 문화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보일러와 라지에이터라는 서구식의 난방기구 사용과 함께 온수의 급수설비는 완전한 문화생활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선주택설계도안을 검토해 보면, 각각의 설계안에서 공통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평면에서 일본식, 양식, 한식의 기거양식이 상호 절충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내 구조에서, 또는 층별로 양식의 절충을 보이고 있다.
- 2) 각 실의 배치는 재래주택에서 보이는 장지문에 의한 상호연결관계에서 벗어나 고정벽으로 처리함으로써 각 실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 3) 재래의 주거에서 보여지는 다기능의 공간을 배제하고, 개선된 주거공간에서는 각 실의 용도를 명확하게 분리계획하고 있다.
- 4) 부엌과 식당의 기능 분리와 함께 욕실, 변소

등은 위생적 처리에 중점을 두는 평면배치를 보이고 있다.

5) 한국의 기후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난방계획으로 온돌보다는 서구풍의 설비인 페치카, 보일러등의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조면에서는 벽돌 조적식의 사용으로 방한과 내화성 대비를 하고 있다.

6) 평면의 공간명칭은 응접실, 서재, 침실, 아동실, 식당, 욕실, 배란다, 발코니 등의 서구풍의 생활공간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현관은 일본주거에서 보여지는 공간이나, 한국전통주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서구풍의 명칭과 함께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도입되는 공간명칭으로 볼 수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에 있어서 1922년 창립된 조선건축회에 의한 첫 번째 주택개선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종합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건축회에 의해 실시된 개선주택 설계현상모집은, 한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주택설계 모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건축회원을 주축으로 출품자를 모집하였으며, 회원들은 모두 일본인들으로써 이들은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시 정부기관의 소속이었다. 이는 건축회 단독의 활동이기보다는, 당시의 정책과 연관성을 갖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주택설계현상모집요강은 주택보급보다는 재래의 주거생활에서 탈피하는 생활개선에 관점을 두고 있다. 가족구성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생활개혁의 주역인 중류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가족중심의 공간구성을 요구하는 등, 현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생활지침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요구하고 있었다.

3) 문화생활이 주장되었다. 여기에서 문화생활이란, 생활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편리함을 추구

하며, 동시에 경제적이고 실용위주의 주거, 이상적인 생활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의·식·주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집작품에서 가족본위, 생활양식, 서구풍의 생활공간, 개성 추구 등은 문화생활의 일면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전시회는 설계작품의 공개를 통하여 문화적 생활개선에 따른 주택개선을 계몽하고, 주최측인 조선건축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대부분 당선작품의 평면구성은 일상생활 중에서 가족을 우위(가족본위)로 하는 의도 표현으로, 「거실겸식당」이라는 가족의 단란 또는 모임이 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배치를 보이고 있다. 전통의 주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공간구성으로써, 현대주거의 「거실중심형」 주거평면과 공통됨을 알 수 있다.

6)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서 구화를 도입하여 공간을 개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실과 침실의 입식양식과 부엌, 화장실, 욕실의 배치 및 위생적 설비개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특유의 기후 및 풍토에 부합되는 주택개선방안은 충분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는 초기과정으로, 서구식의 난방설비를 그대로 도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8)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한국의 정치상황이 설계작품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선작과 공모자 전원이 일본인으로, 한국주거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본주거에 기본을 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일본주거에 문화적 생활을 위한 서구풍의 주거양식이 생활 개선의 의미를 갖고 상호 절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건축회에 의해 시행되고 일반사회에 제시된 개선주택설계현상도안은 한국에서의 일본인들에 의한 활동이었으나, 이를 통하여 한국주거의 근대화 도입과 문화생활의 유입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자료로 재평가 되어야

하며, 이후 계속되는 조선건축회의 주택관련 활동과 함께 그 연관성과 내용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의 발전적 전개를 기대하게 된다.

## 주

- 1) 조선건축회, 『朝鮮と建築』 1집1호, 1922.6.25, p.6
- 2) 전게서, 住宅圖案懸賞募集 p. 58
- 3) 전게서, 本會創立趣旨及經過, 朝鮮建築會趣意 p.2~3
- 4) 전게서, 本會發會式及祝賀晚餐會, 祝辭, 侯爵朴泳孝, 大正11年(1922)4月30日, p.7  
建築物之於美觀尊居所關大矣輒近社會之文明大非前日之比而都市之發展民物之繁榮有促進之漸焉以舊來之施設興規模常有未備之歎於是  
有抱負於斯業者圖所以對應將使美觀而盡經濟之方尊居而有衛生之便比建築會之所由生而余之厚望於斯會者也
- 5) 전게서, 本會發會式及祝賀晚餐會, 祝辭, 侯爵李完用, 大正11年(1922)4月30日, p.7  
朝鮮建築會設立成り玄ニ發會ノ式ヲ舉行セラル  
惟フニ本會ノ如キハ朝鮮文化ノ進歩ニ關シ極メテ重要ナル意義ヲ有スルモノ殊ニ朝鮮家屋改善ノ如キ現下ノ急務ニ蜀本會ノ努力ニ待シ  
所多シ本會ノ前途ヲ祝シ其ノ盛榮ヲ祈ル
- 6) 전게서, 水野政務總監의 挨拶, p.10~11
- 7) 전게서, 中村誠, 論說, 朝鮮建築界의 二大急務, p.20~26
- 8) 전게서, 本會創立의 經過-創立總會-, 役員會, p.4
- 9) 전게서, 住宅圖案玄裳募集, p.58
- 10) 참고문헌 1, 2, 3 참조  
일본에서의 생활개선운동은, 명치유신 이후부터 대정(大正:1912-1926)기와 소화(昭和:1926-1989) 초기에 이르기까지 진행된다. 특히, 대정(大正)초기에는 대학령과 고등학교령이 공포되고 공립, 사립대학과 단과대학이 설립되면서 대학의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의 엘리트층이며,

도시에서의 중간층이 급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중간층을 중심으로 일본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계몽활동은 1915년 5월 1일부터 개최되는 「가정박람회」에서 개선주택을 선보임으로써 시작된다. 이때 일본의 국민일보사는 ‘가정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중류가정의 주택을 어떻게 세우면 만인에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그 실재를 보이기 위하여’란 이유로 주택을 출품한다. 그리고 1922년 3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동경 우에노공원에서 개최되는 「평화기념박람회」에 14棟의 실물 주택이 전시되고, 여기에서 일본건축학회는 건평 약 20평으로 소시민적인 중소규모의 주택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중산 지식계급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생활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을 밝히고 있다.

1922년6월 조선건축회의 개선주택 현상모집은 일본의 「평화기념박람회」가 개최되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생활개선운동을 조선에서도 같은 취지아래 진행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 11) 본 연구에서 신문화는 서구문화를 말한다.
- 12) 표 2 개선주택현상모집 진행상황은, 『조선과 건축』 1집1호~1집5호에 게재된 관련 내용을 본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 13) 조선건축회, 『朝鮮と建築』, 1집4호, 改善住宅圖案懸賞募集成績, 應募圖案展示會開催, 1922. 9.25. (페이지 표기 없음. 목차 다음의 공고형식)  
언제 마감 연기일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고 공고되었는지 명백하지 못하다. 다만, 1집2호의 회보란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1집4호에는 도안의 마감일 연기를 했다는 내용이 이미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3호에 이에 관한 결정과 공고가 있었으리라 추정

되지만, 현재 잡지 3호는 국내는 물론 일본의 도서관 및 정보에서도 원본 및 재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전후 내용과 잡지 출판일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3호에 도안의 연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었으리라 추정한다.

- 14) 조선건축회, 『朝鮮と建築』, 1집 4호, 改善住宅圖案懸賞募集成績, 應募圖案展示會開催, 1992.9.25.
- 15) 표 5 개선주택 도안 당선작 1922년 도면으로 잡지에 게재된 상태가 불량하여 도면에 직접 실 명칭 기재가 어려운 상태이며, 도면 원본을 기본으로 다음의 번역된 명칭 번호를 도면에 부가한다. 특히, 일본식공간명칭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한국식의 공간 명칭으로 한다.

(1)寢室兼主人室=침실겸주인실 (2)座敷兼寢室=주인실겸접객실, 침실 (3)座敷=주인실겸접객실 (4)居間兼食堂=거실겸식당 (5)書齋兼應接室=서재겸응접실 (6)茶の間兼居間=식사실겸거실 (7)茶の間=식사 및 단란실 (8)居間=거실 (9)寢室=침실 (10)老人室=노인실 (11)兒童室=小供室=아동실 (12)夫婦寢室=부부침실 (13)溫突=온돌 (14)女中室=가정부실 (15)臺所=廚房=부엌 (16)便所=변소 (17)化粧=화장실 (18)浴室=浴場=욕실 (19)玄關=현관 (20)廣間=현관 홀 (21)椽側=릿마루 (22)納戸=수납실 (23)物置=창고 (24)ベランダ=베란다 (25)バルコニー=발코니 (26)ベッド=침대 (27)ペチカ=페치카 (28)食堂=식당 (29)應接室=응접실 (30)居間兼寢室=거실겸침실 (31)勉強室=공부실

- 16) 조선건축회, 『朝鮮と建築』, 1집 5호, 懸賞住宅圖案展覽會, 1922.10.25. p.48
- 17) 평면에서 「현관」은, 일본의 전통주거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통의 한국주거에는 이러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선주택설계도안 현상모

집은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인을 위한 것으로 설계도안은 일본양식의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서구식의 공간명칭에서 「현관」을 제외 한다.

- 18) 座敷 : 주로 접객(손님)을 모시는 기능을 하는 방이며, 전통일본주거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계획되며, 이 공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주택의 계급(가치)이 결정된다. 근대이후에는 가장 또는 부부의 침실 기능을 함께 하는 실로 기능의 변화를 가져온다.

茶の間 : 가족이 식사와 단란을 모으는 실로 부엌과 연결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1. 內田清藏(1992), 日本の近代住宅, 鹿島出版會
2. 新建築學大系編集委員會(1993), 新建築學大系7 住居論, 彰國社
3. 住環境の計劃編集委員會 (1999), 住環境の計劃 1住まいを考える, 彰國社
4. 藤森照信(1990), 昭和住宅物語, 新建築社
5. 조선건축회(1922), 朝鮮と建築, 1집 1호~7호
6. 건축운동연구회(1995), 한국근대건축개론, 대건사,
7. 이현희(1981), 한국근대사와 민중의식, 탐구당
8. 홍형욱(1992), 한국주거사, 민음사
9. 강영환(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0. 김홍식(1989), 민족건축론, 한길사
11. 內田清藏(2000), 建築學會の活動からみた大正11年開催の平和記念東京博覽會文化村に關する一考察、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No.529
12. 김광익(1998), 일제시기 토착 지식인의 민족문화인식의 틀, 비교문화연구4호, 서울대비교문화연구소,
13. 주남철(1970), 이조말부터 1945년도까지의 한국의 주택 변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

권 38호

14. 임창복(1991), 일제시대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주거 근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권5호
15. 임창복(1989), 일제시대 주택건축의 경향고찰, 대한건축학회지, 33권2호
16. 김영호 외(1999), 일제시기 조선은행사택의 건축적 의미, 한국주거학회지, 제10권4호